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7년 9월 5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3-7431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 이슈브리프 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9월 5일(화),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 9월 3일(일) 벌어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원유공급 문제와 같은 특정 제재 내용을 일단 안보리 결의 내에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전 안보리 결의에서 '요청한다(calls upon)' 또는 '표명한다(expresses)'는 동사(verb)의 사용과 함께 채택된 내용이 추후 다른 결의에서는 더 높은 강도로 '결정한다(decides)'고 명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대북 원유공급에 대한 우려를 우선 '표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수단이라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미국과도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상 안보리 결의 이외의 다른 대북제재 수단도 병행 추구되어야 한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like-minded countries'는 물론 아세안(ASEAN) 등과도 협력하여 '일방적인(unilateral)'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제재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련 문의: 이기범 연구위원 02)3701-7352, K.B.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레ئم, 아산해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